

보도시점 2023. 10. 30.(월) 16:00 배포 2023. 10. 30.(월) 09:00

## 금융위원장, 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직접 주관

- 금융위원회는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금융보안 위협에 대비해 금융전산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30일(월)에 금융권 대규모 디도스 공격 상황을 가정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금융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

금융위원회는 금융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산업은행 디지털스퀘어에서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9개 금융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 < 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개요 >

- (일시/장소) '23.10.30.(월) 14:30~16:00, 한국산업은행 디지털스퀘어(하남)
- (훈련내용) 금융권의 디도스 공격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 유관기관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
- (참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금융보안원, 중소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결제원 총 9개 기관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공동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분야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금융분야를 에너지·통신 등과 함께 '국가 핵심기반 체계'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다.

이번 금융전산 재난대응 훈련은 디도스 공격\*으로 다수 금융회사의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서비스가 지연·중단되는 위급한 상황을 가정하여 단계별 사고수습 본부를 구성하고 합동 대응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 특정 서버에 트래픽을 집중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해킹 공격의 일종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금융전산시스템 마비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조치사항을 지시하는 등 사고대응 과정을 지휘하였다. 이어서 ‘사이버복원력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훈련”을 주재하면서 국내 금융권의 사이버복원력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지원 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 훈련 상황 : 디도스 공격으로 16개 은행 및 주요 기관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이 지연·중단된 상황

김 위원장은 국내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디도스 공격’ 사례\*를 언급하면서, 최근에도 국내외 디도스 공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권은 금번 훈련을 계기로 전자적 침해행위 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09.7.7일) 디도스 공격으로 국가기관, 언론사, 포털, 주요은행 등 36곳이 공격받은 사건  
(’17.6월) 국제해킹그룹이 국내 은행권 디도스 공격후 비트코인 요구 등을 한 사건 등  
(’23.上) 다수 카드사 디도스 공격이 있었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서비스 중단 피해는 없었음

또한, 김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상황을 보고·전파하고, 이에 기반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신속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공격을 당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도 참여 기관에 요청하였다.

한편, 훈련기관으로 참여한 한국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이번 훈련은 위기 상황에서의 실전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금융분야 국가 핵심 기반시설 관리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훈련을 통해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하였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다각적인 위기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정기적 훈련 등을 통해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수호 (02-2100-2970)
		담당자	사무관 장희진 (02-2100-2979)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2-2100-2790)
		담당자	사무관 김대경 (02-2100-2794)
	한국산업은행 정보보호부	책임자	본부장 김미덕 (02-787-0531)
		담당자	팀 장 송미경 (02-787-474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